서점을 주제로 한 특화거리조성 사례분석

-부산시 '보수동 책방골목' 을 중심으로-

Analysis on Characterized Street Making themed Bookstores

-With a Case of 'Bosu-dong Book Street' in the City of Busan-

신선화, 최강림

경성대학교 디지털디자인전문대학원

Sun-Hwa Shin(d127050@ks.ac.kr), Kang-Rim Choi(krchoi@ks.ac.kr)

요약

본 연구는 특화거리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 특화전략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부산시의 대표적인 특화거리의 하나인 '보수동 책방골목'을 대상으로 특화거리의 조성내용, 조성주체, 조성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외사례고찰의 대상으로 서점을 통한 특화거리 조성의 대표적인 국외사례인 '헤이 온 와이' 책 마을과 '간다 고서점 거리'를 선정하여 보수동 책방골목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화거리의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책과 관련된 관광 및 출판 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운영·관리하는 주체는 주민과 상인이 주도가 되고 공공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주민·상인주도+공공지원'의 형태가 필요하다. 셋째, 특화거리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주민 및 상인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서점 | 특화거리조성 | 부산시 | 보수동 책방골목 | 도시재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 design method to making characterized street for city regeneration and strategy for regional activation through making characterized street. For this purpose we analyze a case of 'Bosu-dong Book Street' in the city of Busan with compared to the cases of 'Hay on wye' in UK and 'Kanda old book street' in Japan.

We have some suggestions from this analysis as follows; 1. Connection with tourism and publication industry is needed for regional economic vitality and urban regeneration. And Both of Softwares and Hardwares those are based on local identity are needed to be developed as contents of the street, 2. Merchants and Residents have to take the leading part and public authority is need to support them as street makers. 3. Sustainable participation and efforts of the community led by merchants and residents are needed in the whole process of making characterized street such as making, operating and management of hardware & software.

■ keyword : | Bookstore | Characterized Street Making | Busan | Bosu-dong Book Street | Urban Regeneration |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번호 : #120829-001

접수일자 : 2012년 08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2년 11월 14일

교신저자 : 최강림, e-mail : krchoi@ks.ac.k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경쟁력 강화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에 매력적인 장소가 많아야 유리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보행을 위한 환경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걸으면서 문화를 체험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볼 때,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화전략의 일환으로 특화거리조성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쇠퇴한 지역의 재활성화와 도시의 매력도 증진을 위하여 거리의 특성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체의 실시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의 거리 조성 붐이 일었고, 도심이나 유서 깊은 지역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선정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거리의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기존의 특화거리는 대부분 도시 및 장소의 특성과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특화거리조성은 도시의 매력적인 장소로서의 거리를 조성하여 도시이미지와 도시브랜드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기존의 대다수 공공디자인사업과 마찬가지로 특화거리조성사업의 경우도 지역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특화거리의 주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함으로써 충분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특화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바람직한 특화거리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오랜 시간의 삶의 흔적과 매력을 간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몇 안 되는 헌책방거리인 부산광역시의 '보수동 책방골목'을 사례대상으로 하여 특화거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거리의 특성과 가치를 활용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한 국외선진사례인 '헤이 온 와이' 책 마을과 '간다 고서점 거리'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의 대표적 특화거리의 하나인 '보수동 책방골목'을 분석대상지로 선정

하고, 이와 더불어 이론적 고찰의 대상으로 영국의 '헤이 온 와이' 책 마을과 일본의 '간다 고서점 거리'를 선정한다. 내용적 범위는 각 사례별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 후 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로 이루어지며, 다음의 4단계에 의하여 진행된다.

먼저 관련연구 고찰과 문헌조사를 통하여 특화거리의 이론적 배경을 설정하였다. 다음단계로 문헌조사를 통하여 서점을 통한 특화거리조성의 선진사례로 국외의 '헤이 온 와이' 책 마을과 '간다 고서점 거리'의 2개 사례에 대해 고찰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본 연구의 주요대상인 '보수동 책방골목'에 대하여 문헌조사와 실제 답사를 통하여 관찰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특화거리 조성사례의 고찰을 분석의 틀[표 4]을 설정하여 특화거리조성의 '내용', '주체', '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외의 '헤이 온 와이' 책 마을과 '간다 고서점 거리'와 국내의 '보수동 책방골목'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특화거리 관련 이론적 고찰

1. 특화거리의 정의와 실태

특화거리란 도시지역 내에서 상업지역의 지역분화가 이루어지고 소비행태가 다양화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업형태로 동일 혹은 유사한 기능의 상업업종들이 집적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군집을 이루어 입지하는 거리를 말한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와 맞물려 개별 구(區)단위의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밀착형으로 이동하는 추세와 함께 부도심이나 지역 중심지에도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1]. 이러한 특화거리는 군집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 내 기능들을 더 기능화 시켜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어 특화거리만이 가지고 있는 주제별로 이미지를 정하고 그에 맞는 거리 분위기를 디자인 해나가야 한다[2].

특화거리는 상업기능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극대화를 위한 장소적 역할과 함께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문화창출과 소비에 따른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화거리의 문화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구도심 도시재생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구도심의 역사문화를 간직한 역사성과 장소성이 있는 가로와 예전에 이용이 활발하였던 중심상업가로 등을 문화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 특화거리·가로, 등으로 지정하여 거리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지역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타 지역 특화거리의 경제적 측면만을 보고 무분별한 조성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투자대비 효과가 매우 미미하여 도심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특화거리의 활성화는 거리 자체의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원도심 재생의 중요요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3].

또한 시범가로조성, 차 없는 거리, 가로디자인 사업, 간판 개선 사업 등 시범사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어 왔고 나름대로 성과를 보기도 하였으나, 그 준비 단계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행 가이드라인과 성과에 대한 평가규범의 부재[4]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화거리 조성에 있어서의 주제 및 과정에 대한 고려도 결과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관련연구 고찰

국내 도시의 특화거리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도시공간구조를 이해하려는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1980년대에는 단일 도시기능의 분석을 통해 도시내 부기능의 공간배열 및 계층화를 시도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도시 문화환경을 고려한 가로활성화 및 보행자 공간에 대한 거리내부의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대학로 및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가로에 대한 장소성 등 가로 공간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거리조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도시 내 특화지역의 공

간적, 기능적 문제와 개선 대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3].

박현규·박천보(2003)는 '도심재생을 위한 특화거리의 조성과 개선방안'에서 국내 사례분석을 통해 특화거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으며[5], 이진숙 외 2인(2009)은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환경디자인 요소의 영향분석'에서 특화가로 구성요소간의 평가특성 분석을 토대로 특화가로 이미지 형성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는 등 특화거리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2].

손재룡 외 4인(2003)은 '특화거리 조성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Network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에서 구성원간의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고[1], 이용성·정석(2008)은 '참여주체 관점에서 특화거리 활성화요인 분석'에서 특화거리의 정착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특화거리 조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6], 박천보(2009)는 '물리환경적 도심재생 관점의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국내 사례대상지의 물리환경 및 운영측면의 분석을 통하여 활성화를 위한 영향요소의 파악과 향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3].

이상과 같이 기존연구의 경우 특화거리의 활성화요인과 특화거리의 운영측면(소프트웨어)에 필요성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물리적인 환경개선(하드웨어) 방안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된 특화거리의 내용(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참여주체와 활성화를 위한 과정에 대해서도 국외선진사례와 국내사례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서점을 통한 특화거리 조성사례 고찰

3.1 영국 웨일즈의 '헤이 온 와이' 책 마을

영국 웨일즈 지방의 '헤이 온 와이(Hay on wye)'는 와이(wye)강가에 있는 헤이(Hay)마을이라는 뜻이다. 인구 1,500명의 작은 마을은 특색 있는 헌책방이 40여 개나 되고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 연간 책 판매량이 100만 권을 넘고, 주민 전체가 헌책방을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이 마을에

는 40여개의 책방 외에 34개의 골동품 가게와 갤러리, 35여개의 작은 호텔과 Bed & Breakfast(숙박과 조식이 제공되는 영국식 민박) 그리고 음식점과 식료품 가게들이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면서도 지역정체성을 담고 있다. 매년 5월 ‘헤이축제(Hay Festival)’가 열리며 축제 때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각종 문화행사, 국제교류 등에 참석하며 문화, 음악, 미술 등을 총망라하는 종합문화축제로 펼쳐진다.

그림 1. ‘헤이 온 와이’ 책 마을 시설[7]

그림 2. ‘헤이 온 와이’ 책 마을 행사이벤트[8]

‘헤이 온 와이’ 책 마을의 성공비결은 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마을 주민들의 헌책에 대한 가치와 열정, 자부심, 주인의식, 독특한 서점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 확보, 불거리, 먹을거리 등이 잘 어우러져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특히 ‘헤이축제’는 영국 가디

언지의 후원과 대기업들의 관심을 받으며 세계적인 커뮤니티의 장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주변국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진출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축제를 매개로 헤이타운의 세계화를 꿈꾸고 있다.

그림 3. ‘헤이축제’를 통한 세계화[9]

표 1. ‘헤이 온 와이’ 책 마을 분석내용

구분		헤이 온 와이 책마을(영국)	
내용	하드웨어	유형	·자연발생적 ·농촌마을 형태의 관광촌 ·1962년 리처드 부스(주민)에 의해 형성
		시설	·서점 (40여개) ·오픈 마켓 (고성 주변) ·골동품점 & 갤러리 (34여개) ·숙박업 (35여개)
		특징	·고성(Hay Castle), 교회 광장 등 오랜 장소성이 마을의 정체성 형성
소프트웨어	행사 · 이벤트		·헤이축제(1988년 시작)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Hay Fever’ (2011년 시작)
	프로그램		·영화 세션 / 전시, 강연, 토론회 ·문화·예술공연 / 헌책 베품시장
주체	유형		·주민주도+상인주도+정부지원
	특징		·주민들이 서점 운영 ·입주자에게 자금 지원과 세금혜택 ·공공기관, 기업의 후원 확대
	협력체계		·지속적 협력관계
	상호작용		·주민 ↔ 상인 ↔ 정부
과정			·1972년 ‘책마을’로 불리기 시작 ·1977년 ‘헤이독립선언서’ ·1988년 축제 시작, 테마관광 코스개발 ·2010년 아프리카 말리에 제2의 책마을 조성

책마을의 주민이 곧 상인이기 때문에 주민(상인)들은 주체적으로 마을을 운영관리하며 정부와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커뮤니티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 또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수준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헤이 온 와이’ 책마일은 시대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던 ‘고서점’과 ‘골동품’을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오래된 성, 버려진 집, 쓸모없던 창고가 주민의 손에 의해 특색 있는 책 마을로 재탄생 되었다. 또한 주민 주도하에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모색하고, 기업과 정부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서점을 통한 장소 마케팅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로도 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2 일본 ‘간다 고서점 거리’

‘간다 고서점 거리’의 간다는 행정구역으로서의 간다 보다는 범위가 좁다. 진보초 교차점을 중심으로 대략 반경 600m 이내의 지역이다. 간다와 진보초는 학교와 서점, 출판사가 몰려 있는 도쿄의 교육 문화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곳으로, 메이지 시대부터 서점가로 자리를 잡았더니 꽤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다.

a. 고서점

b. 신간서점

그림 4. ‘간다 고서점 거리’ 시설[10]

a. 간다 고서 축제

b. 고서 할인판매

그림 5. ‘간다 고서점 거리’ 행사이벤트[11]

2003년 말 간다에는 고서점 160여 곳, 신간 서점 30여 곳, 서적 도매업체 30여 곳, 출판사 및 편집기획사 500

여 곳이 들어서 있으며, 간다 지역 서점이 보유한 재고 도서는 약 1천만 부에 달하며 종수로는 약 3백만 종에 달한다. 1960년 진보초 교차점에서 제1회 ‘간다 고서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해마다 가을 독서 주간에 맞추어 열려 간다 뿐만 아니라 도쿄의 대표적인 명물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림 6. ‘간다 고서점 거리’ 지도[12]

표 2. ‘간다 고서점 거리’ 분석내용

구분		간다 고서점 거리(일본)	
내용	하드웨어	유형	·자연발생적 ·도심지 가로형 ·메이지 시대부터 형성
		시설	·고서점 (160여개) ·신간서점 (30여개) ·출판사나 기획사 밀집(500여 곳) ·동경 고서회관
	소프트웨어	특징	·주변에 대학교 밀집 ·1000만 권의 책 보유, 세계최대장서 ·오래된 대형 서점 공존 (산세이도 서점)
		행사·이벤트	·간다 고서 축제(1960년 시작) ·음악공연(길거리 공연), 고서 전시 ·헌책 자선경매, 고서 할인판매 ·고서점 지도첩 배부
주체	협력체계	프로그림	·고서정보검색(전자목록) ·지도정보검색(서점위치) ·주말마다 ‘고서 즉매회(即賣會)’
		유형	·주민참여+상인주도+정부지원
	상호작용	특징	·동경 고서적 상업협동조합 간다지부 ·치요다구·간다 고서점 연맹 ·책 기증 문화
		협력체계	·부분적 협력관계
과정	상호작용		·주민 ↔ 상인 / 상인 ↔ 정부
	과정		·1910년 경부터 서점거리의 상징 ·1947년 동경 고서적 상업협동 조합 설립 ·1960년 축제 개최

‘간다 고서점 거리’는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흐름에 따

라 보다 전문화, 특화된 서점들이 늘어나면서 저렴한 가격의 서적, 이용객을 위한 휴식공간과 먹을거리, 볼거리, 다양한 거리 풍경 등이 어우러져 거리만의 특색이 더해졌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2003년 7월 낡은 회관을 허물고 ‘동경 고서회관’을 신축하였으며, 회관 전체에 IT 시스템을 갖추어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일본 전국의 고서점 소재지, 2백 50만 권에 이르는 고서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다 고서점 거리’를 운영·관리하는 상인들은 필요조건에 따라 상업협동조합 및 연맹을 조직화하여 부분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상인들이 주체적으로 고서점 거리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간다 고서점 거리’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고서 즉매회(即賣會)에는 전국의 애서가들이 모여든다. 일본인들 중 상당수는 60세가 되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책을 ‘간다 고서점 거리’에 기증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관습이 생길 만큼 ‘간다 고서점 거리’는 일본 독서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자부심이 ‘주민참여’로 이어지며, 고유의 거리문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Ⅲ. 보수동 책방골목 사례분석

1. 부산시 특화거리 관련 계획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의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회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부산시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거점 한 다양한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표 3]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거리를 문화콘텐츠로 본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역의 거리문화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야기되어 왔지만, 지자체별로 문화의 거리 조성 붐이 일면서 특화거리 조성계획이 가시화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특화전략으로서의 사업유치를 위한 경쟁에 치중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대부분을 하드웨어(물리적인 환경요소)

측면에만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다. 반면 거리문화를 이루는 지역민의 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위한 소프트웨어(유기적인 환경요소) 측면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나 계획은 미비한 단계이다.

표 3. 부산시 특화거리 관련 계획

자치구	사업명
중구	40계단 일원 역사테마거리
	젊음의 거리
	자갈치 시장 보행자 특화거리
	수산물 특화거리 (자갈치 수산물광 단지 내)
동구	차이나타운 특화거리
	조방 명품거리
남구	대학가창업·문화 특화거리
부산진구	서면 특화거리
	서면 글로벌 뷰티 메디컬 스트리트
	서면 수변테마거리
북구	구포 명품 피아노 특화거리
사하구	문화의 거리

출처: 부산시 자료와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여 구성

2. 분석의 틀 및 대상지 개요

2.1 분석의 틀

특화거리 조성사례의 고찰을 특화거리조성의 ‘내용’, ‘주체’, ‘과정’에 따라 분석하고, 다음의 [표 4]와 같이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분석의 틀에서 특화거리조성의 ‘내용’은 하드웨어(물리적인 환경요소), 소프트웨어(유기적인 환경요소)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주체’는 참여주체의 유형과 특징, 협력체계,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특화거리조성과 운영관리에 있어서 활성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4. 분석의 틀

내용	하드웨어	유형
		시설
		특징
	소프트웨어	행사이벤트
프로그램		
주체	유형	
	특징	
	협력체계	
	상호작용	
과정		

2.2 대상지 개요

‘보수동 책방골목’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에 있는 부산의 명물거리로, 부산 국제시장 입구 대청로사거리 건너편에서 보수동 쪽으로 나 있는 좁은 골목길에 헌책방이 밀집되어 있다. 8.15광복 직후 오늘날의 국제시장이 태평양전쟁으로 주택가가 철거되어 빈터로 놓여 있을 때 일본인이 남기고 간 책을 난전을 벌여 팔았는데, 그 장소가 개인소유가 되자, 보수동 앞길로 책장사들이 자리를 옮겨 앉게 되면서부터 오늘의 골목이 생겨났다.

그림 7. 사례대상지 위치[13]

6.25 한국전쟁으로 임시수도가 되었을 때는 피난민이 가져온 귀중한 책을 생활을 위해 팔고 사들이는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자 본격적인 가건물이 서게 되어 헌책방골목이 형성되었다. 당시 많은 피난민들은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고, 부산소재 학교는 물론 피난 온 학교까지 구덕산 자락의 보수동 뒷산에서 천막교실을 열어 수업을 하였다. 이에 보수동 골목길은 수많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붐비게 되었다[14].

그림 8. '보수동 책방골목' 서점 위치도[15]

60년대 초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판문화가 자리를 잡지 못하자 수많은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책을 구하기 위해 헌책을 사고파는 일이 잦았으며, 이에 노점 헌책방은 성황을 이루며 그 수가 점차 늘어나 60~70년대에는 70여 점포가 넘어 전성기를 누렸다. 이렇게 생겨난 ‘보수동 책방골목’은 지금까지 전국에 몇 안 되는 책방골목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90년대 이후 구도심의 쇠퇴와 지역상권의 침체로 인해 고유의 멋과 부산의 근대역사문화적 가치가 퇴색되고 있으며, 지역정체성마저 변질되어 가고 있다.

a. 주보행로

b. 광장

c. 휴식공간

d. GATE 1

e. GATE 2

f. GATE 3

g. 안내사인

h. 안내판(책방골목문화관)

그림 9. 사례대상지 현황

3. 사례대상지 분석

6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보수동 책방골목’은 오랜 시간의 켜가 집적된 문화이며, 부산의 근대역사를 배경으로 서민의 삶이 새겨져 있는 장소이다. 최근 인터넷 서점의 부흥과 정보통신·미디어의 발달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퇴색 되어가는 책방골목의 옛 명성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수동 책방골목번영회’는 2004년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시도 2010년 17억 원을 들여 책을 테마로 한 ‘진통문화거리조성사업’ 등의 추진을 통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분석의 틀에 의하여 특화거리조성의 ‘내용’, ‘주체’, ‘과정’에 따라 대상지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보수동 책방골목' 분석내용

구분		분석내용
내용	하드웨어	유형 ·자연발생적 ·도심지 가로형 ·1950년 피난민에 의해 형성
		시설 ·서점 (50여개) ·카페 (4개), 레스토랑(1개) ·공방 (2개), 분식점 (1개) ·숙박·유흥 (2개)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특징 ·골목 형태로 구간 확장 ·주변에 관광명소 인접(국제시장, 자갈치시장, 40계단, 용두산 공원 등)
	소프트웨어	행사·이벤트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2005년 이후 매년 9월) ·문화·예술공연(길거리 공연), 도서무료교환, 고서전시회
		프로그램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강좌
주체	유형	·상인참여(제한)·관주도(사·구)
	특징	·보수동책방골목번영회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사)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위탁운영
	협력체계	·일회적인 협력관계(축제 시)
	상호작용	·주민 ≠ 상인 ≠ 정부
과정		·2005년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개최 ·2010년 '전통문화거리조성사업' 추진 ·2010년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개관

3.1 내용

첫째, 하드웨어 측면은 역사문화적 시대배경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독특한 공간적 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흔적과 이야기가 거리의 특색으로 읽히기 보다는 밀집된 상권의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문화소통을 창출하기에는 기반시설의 한계가 있었다. 부산시는 2010년 17억 원을 들여 책을 테마로 한 '전통문화거리조성사업' 등의 추진하였고, 책방골목의 역사와 지속가능의 의지를 담은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을 2010년 12월 8일에 개관하여 중구청 관할 하에 운영하는 등 물리적 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은 마련되고 있으나, 실제 활용도는 아직 낮다. 오히려 최근 업종변경으로 새롭게 생겨난 카페(4개소)와 레스토랑(1개소), 공방(2개소) 같은 소규모의 휴식·여가공간이 방문객의 '머무름'을 유도하며 책방골목의 특색을 더해주고 있다. 그와 반대로 책방골목 중심부에 있는 숙박·유흥업소는 특화거리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된다.

a. 서점

b. 카페, 공방

c. 분식점

d. 숙박·유흥

e.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그림 10. 하드웨어(시설)

둘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수동 책방골목번영회'는 2004년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해마다 9월에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를 통해 도서무료교환, 고서전시회,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축제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며, '보수동 책방골목번영회'의 주축로 커뮤니티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문화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구청의 지원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책방골목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책방골목 특유의 역사문화적 스토리텔링에 의한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과 지원이 미비하다.

3.2 주체

주체에 있어서는 관(부산시, 중구)이 주도하고 상인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보수동

책방골목변영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그 역할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며,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변영회의 조직력 또한 제한적이다.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은 중구청에서 1년간 운영하였으나, 2012년부터 (사)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위탁 운영 이후, '부산민주공원', '40계단' 등 주변의 명소와 연계된 활성화는 추진되고 있지만, 책방골목 상인들과는 여전히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책방골목을 중심으로 두 주체가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상호작용이나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역주민을 비롯한 상인들과의 협의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이 아닌 관주도의 특화방안이 단기간에 추진됨에 따라 주민과 상인, 정부의 협력관계가 일회적이다. 이에 따라 주민과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유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b.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강좌

그림 11. 소프트웨어(행사이벤트)[16]

3.3 과정

과정에 있어서는 2005년부터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2010년에는 '전통문화거리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였다. 2010년에는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을 개관하여 전시, 강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주도라는 성격의 한계로 인하여 주민참여의 부재와 커뮤니티 소통의 단절이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특화거리조성과 활성화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의 의견수렴이나 협의절차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2. 특화거리 조성사업 과정[17]

IV.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국외사례인 영국의 '헤이 온 와이 책마을' 및 일본의 '간다 고서점 거리'와 국내사례인 부산의 '보수동 책방골목'을 비교한 분석결과[표 6]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에 관하여 먼저 하드웨어 측면을 유형, 시설, 특징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에 있어서 국·내외 사례 모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농촌마을형태(헤이 온 마을)와 도심지 가로형(간다 고서점 거리, 보수동 책방골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에 있어서는 국외사례의 경우 서점을 중심으로 하여 오픈마켓, 골동품점 및 갤러리, 숙박업(이상 헤이 온 와이 책마을), 출판사, 기획사, 고서회관(이상 간다 고서점 거리) 등 관련 산업이 발달하였으나, 보수동 책방골목의 경우에는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과 카페·레스토랑 및 공방, 향수를 느끼게 하는 분석점은 골목의 성격과 관련이 있으나, 숙박·유흥시설 등은 골목의 성격을

표 6. 분석의 종합

구분			헤이 온 와이 책마을(영국)	간다 고서점 거리(일본)	보수동 책방골목
내용	하드웨어	유형	·자연발생적 ·농촌마을 형태의 관광촌 ·1962년 리처드 부스(주민)에 의해 형성	·자연발생적 ·도심지 가로형 ·메이지 시대부터 형성	·자연발생적 ·도심지 가로형 ·1950년 피난민에 의해 형성
		시설	·서점 (40여개) ·오픈 마켓 (고성 주변) ·골동품점 & 갤러리 (34여개) ·숙박업 (35여개)	·고서점 (160여개) ·신간서점 (30여개) ·출판사나 기획사 밀집(500여곳) ·동경 고서회관	·서점 (50여개) ·카페 (4개), 레스토랑(1개) ·공방 (2개), 분식점 (1개) ·숙박·유흥 (2개)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특징	·고성(Hay Castle), 교회 광장 등 오랜 장소성이 마을의 정체성 형성	·주변에 대학교 밀집 ·1000만 권의 책 보유, 세계최대장서 ·오래된 대형 서점 공존 (산세이도 서점)	·골목 형태로 구간 확장 ·주변에 관광명소 인접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40계단, 용두산 공원 등)
	소프트웨어	행사·이벤트	·헤이축제(1988년 시작)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Hay Fever' (2011년 시작)	·간다 고서 축제(1960년 시작) ·음악공연(길거리 공연), 고서 전시 ·헌책 자선경매, 고서 할인판매 ·고서점 지도첩 배부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2005년 시작) ·문화·예술공연(길거리 공연), 도서무료교환, 고서전시회
		프로그램	·영화 세션 ·전시, 강연, 토론회 ·문화·예술공연 ·헌책 베품시장	·고서정보검색(전자목록) ·지도정보검색(서점위치) ·주말마다 '고서 즉매회(即賣會)'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강좌 (전시, 강연, 교육)
주체	유형		·주민주도+상인주도+정부지원	·주민참여+상인주도+정부지원	·상인참여(제한)+관주도(사·구)
	특징		·주민들이 서점 운영 ·입주자에게 자금 지원과 세금혜택 ·공공기관, 기업의 후원 확대	·동경 고서적 상업협동조합 간다지부 ·치요다구· 간다 고서점 연맹 ·책 기증 문화	·보수동책방골목번영회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사)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위탁운영
	협력체계		·지속적 협력관계	·부분적 협력관계	·일회적인 협력관계(축제 시)
	상호작용		·주민 ↔ 상인 ↔ 정부	·주민 ↔ 상인 / 상인 ↔ 정부	·주민 ≠ 상인 ≠ 정부
과정			·1972년 '책마을' 로 불리기 시작 ·1977년 '헤이독립선언서' ·1988년 축제 시작, 테마관광 코스 개발 ·2010년 아프리카 말리에 제2의 책마을 조성	·1910년 경부터 서점거리의 상징 ·1947년 동경 고서적 상업협동 조합 설립 ·1960년 축제 개최	·2005년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개최 ·2010년 '전통문화거리조성사업' ·2010년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개관
			·주민=상인 협력체계에 의한 커뮤니티 극대화 ▼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적 네트워크 구축 ▼ ·자발적/지속적/범세계적 참여 ▼ ·공공기관, 기업, 정부의 지원 확대 ·협력체계에 의한 세계화	·상인 커뮤니티 활성화 및 체계화 ▼ ·문화콘텐츠 개발 ·정보 네트워크 구축 ▼ ·자발적/지속적 주민참여 ▼ ·정부 지원의 확대 ·협력체계에 의한 운영관리	·제한적인 상인 커뮤니티 ·주민≠상인 커뮤니티간의 소통 부재 ▼ ·단편적인 문화콘텐츠 ·소극적 네트워크 ▼ ·일회적인 주민참여 ▼ ·제한적인 정부지원 ·일회적인 협력관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특징에 있어서 국외사례의 경우 고성, 교회 광장 등 오래된 마을의 특성을 보유(이상 헤이 온 와이 책마을)하고 있는가 하면, 주변에 대학이 밀집하고 세계 최대의 장서를 보유한 서점 및 대형고서점(이상 간다 고서점 거리) 등이 입지하는 등 지역의 정체성과 장소성이 강하다. 이에 비해 국내사례의 경우에는 주변에 구도심의 관광명소가 연결하고는 있으나, 서점골목과의 성격과 분위기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을 행사·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행사·이벤트는 국내·외 사

례 모두에서 거리축제, 문화공연, 전시, 경매 등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었다. 국외사례의 경우에는 1988년부터 시작된 '헤이 축제'와 1960년부터 시작된 '간다 고서 축제' 등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인지도와 참여율이 높은 데 비하여, 보수동 책방골목의 경우는 2005년 '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를 처음 개최한 이후 아직 연륜도 오래 되지 않았고 인지도와 참여도도 국외사례만큼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국외사례의 경우 영화세션, 작가·학자들의 전시 및 강연, 문화·예술 공연, 베품시장, 어린이 교육(이상 헤이 온 와이 책마을), 고서정보검색 네트워크 시스템, 주말 고서 즉매회

(이상 간다 고서점 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보수동 책방골목의 경우는 전시·강연·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책방골목문화관의 강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책과 관련된 관광 및 출판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및 상승효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차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주변의 명소와 연계된 문화상품으로서의 보수동 책방골목에 대한 활성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체에 관하여 유형과 특징, 협력체계,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에 있어서 국외사례의 경우에는 '주민주도+상인주도+정부지원'(헤이 온 와이 책마을)의 형태와 '주민참여+상인주도+정부지원'(간다 고서점 거리)의 형태를 보임으로써 주민 및 상인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유형인데 비하여 보수동 책방골목의 경우는 상인의 참여가 제한된 관주도형을 취하고 있다. 특징은 국외사례의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자금 지원 및 세금혜택이 있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후원(헤이 온 와이 책마을)이 확대되고 있으며, 각종관련단체 및 고서적 기증문화(간다 고서점 거리)가 활발하고, 국내사례의 경우에는 '보수동 책방골목번영회'가 주체로 활동하고 있고, 2012년부터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은 (사)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주도 하에 상인은 활동 영역이 제한적이다.

협력체계에 있어서 국외사례의 경우에는 참여주체간의 지속적인 협력체계(헤이 온 와이 책마을)와 부분적 협력체계(간다 고서점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보수동 책방골목의 경우는 참여주체간의 협력체계가 없으므로 커뮤니티에 의한 활성화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주체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국외사례의 경우 주민, 상인, 정부의 상호작용이 커뮤니티 활성화를 극대화(헤이 온 와이 책마을)하거나, 주민과 상인 또는 상인과 정부 간의 상호작용(간다 고서점 거리)으로 운영관리의 체계화를 이뤄나가고 있다. 반면

보수동 책방골목은 주민, 상인, 정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커뮤니티 활동영역의 제약은 더 심각하다.

따라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운영·관리하는 주체는 주민과 상인이 주도가 되고 공공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주민·상인주도+공공지원'의 형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보수동 책방골목번영회' 등과 같은 상인협의회가 주민·상권 토지소유자·상인(자영업자, 임대업자) 간의 협력조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부산시 및 중구와 같은 행정조직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과정에 관하여 정리하면, 국외사례의 경우 오랜 시간을 통하여 주민참여와 커뮤니티에 의한 활성화를 이루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주체를 형성하였다. 또한 기업 및 정부지원의 확대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참여주체간의 협력체계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보수동 책방골목의 경우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취하고는 있지만 아직 주민참여가 부재하며 커뮤니티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한적인 정부지원과 일회적인 협력관계로 인해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단편적인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특화거리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주민 및 상인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동 책방골목 및 주변 상인과 주민, 중구청, 부산시 등 관련 주체간의 지속적인 협의과정 및 소통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부산시 보수동 책방골목을 대상으로 특화거리의 조성내용, 조성주체, 조성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국외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화거리조성에 있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문화컨텐츠로 인식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화거리조성을 결과로 여기지 않고, 참여주체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에 의한 과정으로 여기고 이를 위한 운영체제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국외사례분석에 있어 문헌조사에 따른 2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분석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것과 특화거리조성과 활성화 과정에서 참여주체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비교분석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대상지 조사를 통한 참여주체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특화거리조성의 내용, 주체, 과정에 있어서 참여주체간의 협력체계에 따라 지역 활성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도출하여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 특화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기초연구로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화거리조성과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손재룡, 최준호, 이용준, 이상호, 이경희, “특화거리 조성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Network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3권, 제1호, pp.487-490, 2003.
- [2] 이진숙, 김지혜, 김효정,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환경디자인요소의 영향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5권, 제2호, pp.257-264, 2009.
- [3] 박천보, “물리환경적 도심재생 관점의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5권, 제8호, pp.285-292, 2009.
- [4] 우신구, 조연경, “상업가로 평가규범으로서 알렉산더의 패턴 언어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5호, pp.93-102, 2010.
- [5] 박현규, 박천보, “도심재생을 위한 특화거리의 조성과 개선방안-대전광역시 한의약거리를 중심으로-

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3권, 제1호, pp.479-482, 2003.

- [6] 이용성, 정석, “참여주체 관점에서 특화거리의 활성화 요인 분석-분당신도시 정자동 카페거리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pp.509-519, 2008.
- [7] <http://www.bsjunggu.go.kr>
- [8] <http://www.hay-on-wye.co.uk>
- [9] <http://www.hayfestival.com>
- [10] <http://www.hayfestival.com>
- [11] <http://www.jimbou.info>
- [12] <http://www.allnp.net>
- [13] <http://www.kosho.or.jp>
- [14] <http://local.daum.net>
- [15] <http://www.bsjunggu.go.kr>
- [16] <http://cafenaver.com/bosubook>
- [17] <http://local.daum.net>

저 자 소 개

신 선 화(Sun-Hwa Shin)

정회원

- 2000년 2월 : 경성대학교 디자인 학부 환경디자인(디자인학사)
- 2005년 2월 : 경성대학교 디지털 디자인전문대학원(디자인학석사)
- 2007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 도시환경디자인, 마을만들기

최 강 림(Kang-Rim Choi)

정회원

- 199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건축 공학과(공학사)
- 1993년 8월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조경학석사)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디지털디자인전문 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도시디자인, 장소만들기, 장소마케팅